

SBS 미디어넷, 에어리얼 MAM 도입

다채널 통합 미디어 관리 시스템 구축



“SBS 미디어넷은 7개 채널의 통합 MAM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고 제머나이소프트의 꾸준하고 열정적인 기술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백종훈 SBS 미디어넷 경영지원팀 차장

■ 고객사

SBS 미디어넷

■ 업종

방송

■ 도입 배경

- ✓ 영상물의 디지털화, 생명주기 관리 체계 필요
- ✓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통합 관리 필요
- ✓ 제작 및 송출 자동화 필요

■ 도입 효과

- ✓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화, 통합 관리 달성
- ✓ 워크플로우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 ✓ MAM 시스템과 보도·송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통합 디지털 방송 환경 기반 마련

SBS 플러스, SBS funE, SBS 스포츠, SBS 골프, SBS CNBC, SBS MTV, 니켈로디언(nickelodeon)의 7개 전문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방송 채널 사업자인 SBS 미디어넷(대표 김계홍 sbsmedianet.sbs.co.kr)은 제머나이소프트 에어리얼(Ariel) MAM(Media Asset Management) 솔루션을 도입, 전체 채널을 통합하는 MAM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 시스템을 보도·송출 시스템과 연계하고 SBS 본사와 아카이빙 시스템에도 연동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한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을 구현했다.

미디어 통합 관리로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 필요

2012년, SBS 미디어넷은 영상 자료의 생성·관리 등 모든 정보와 자료의 보관·관리·폐기 등 전 과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방송 업무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MAM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팀 단위에서 보관·활용하고 있던 영상, 음원, 문서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각 자료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SBS 본사와 아카이빙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통합 관리하고, 보도 정보 시스템과 송출 시스템을 연계해 효율적인 통합 디지털 방송 제작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문성과 안정성 우수한 '에어리얼 MAM' 도입

SBS 미디어넷은 방송 녹화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백업, 방송 전문 시스템 및 NLE(Non-Linear Editing) 시스템과의 연동, 이를 통한 미디어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 제작 시스템 (Network-based Production System : NPS) 연동은 물론, 관리, 전송, 트랜스코딩 등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했다. 또한 SBS 본사 아카이브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이동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스토리지, 대용량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 안정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은 필수였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7개의 전문 채널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할 파트너로 SBS 미디어넷이 선택한 솔루션은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Ariel) MAM이었다.

제머나이소프트는 이미 다수의 사이트에 적용돼 성능과 안정성, 확장성까지 검증받은 최적의 엔터프라이즈급 MAM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최고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표준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 높은 수준의 산출물과 프로젝트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다채널 환경과 본사 연동, 확장성까지 고려한 시스템 구축

제머나이소프트는 다채널인 SBS 미디어넷 제작 및 관리 환경과 본사 제작의 특성, 다양한 스토리지 구성 방식, 상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원,

■ 도입 솔루션

Ariel MAM

- Catalog
- Transfer Manager
- Transcoder
- Rewrapper
- QC
- Delete Policy
- Search Engine
- PFR(Partial File Restore)
- FTP server
- Ariel MAM Browser for M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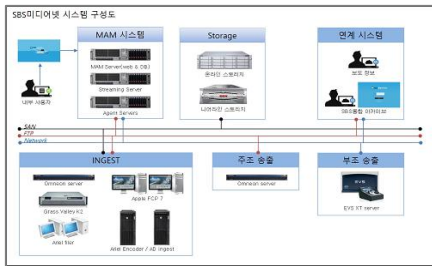
Ingest

- K2 Summit with Gemiso Ingest Manager
- Omneon Mediadeck with Gemiso Ingest Manager
- Ariel V2(Matrox based Gemiso Encoding System)
- File ingest
- KOBACO AD ingest manager
- FCP7 Plug-in

Studio Play out

- EVS XT[3] with EVS Integration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향후 메타데이터에 대한 메타필드 확장성과 방송 콘텐츠 편집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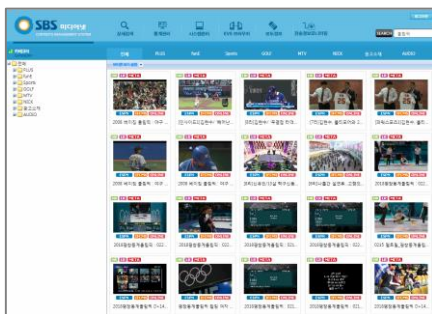
[서버실 내부 전경]

1단계에서는 MAM 시스템과 NPS를 구축하고 이를 보도 정보 시스템, APC, IF CMS와 연동했다. 2단계에서는 MAM 시스템과 NPS의 커스터마이징, 스마트 디바이스 검색 시스템과 본사 IF CMS와의 2차 연동을 수행했다.

이로써 SBS 미디어넷은 미디어 자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통합 관리와 편집 구성 요소 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도 정보 및 주조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안정된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7개 채널 통합 MAM 시스템 구축

이 프로젝트를 통해 SBS 미디어넷은 SD, HD 디지털 영상 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첫째 효과로 꼽았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손쉬운 검색과 데이터 활용 등 방송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채널 정책이나 편성 정책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PS 시스템]

또한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미디어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로 검색이 용이해졌고 미디어 자료의 활용도 신속해졌다.

무엇보다도 SBS 미디어넷은 7개 전체 채널을 통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MAM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방송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SBS 미디어넷은 4K UHD(Ultra High Definition), FCP(Final Cut Pro) X로의 전환 등 선진적인 방송 환경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생성, 보관, 수정, 배포, 폐기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개발한 미디어 자산 관리(Media Asset Management) 솔루션, 보도 정보 솔루션 등 미디어에 대한 기술력은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방송 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과 보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더욱 유연하고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